

# WBC 막내 이의리 “미래 위해 두려움 뚫고 던질 것”

**KIA 타이거즈  
애리조나 캠프**

김여울 기자 미국 투싼 캠프를 가다

KIA 타이거즈 차세대 에이스가 자신과 KBO의 미래를 위해 두려움과 싸운다.

KIA 좌완 이의리가 14일(현지시간) 애리조나 스프링캠프 마지막 훈련을 마친 뒤 WBC 대표팀에 합류했다. 프로 첫 해 참가한 도쿄올림픽에서 남다른 실력을 보여줬던 이의리는 이번 대표팀에서도 눈길 끄는 ‘막내’다.

장성한 선배들 사이에서 가장 어린 선수지만 역할은 막중하다. 올림픽 무대에서 경험한 상대와는 또 다른 무게감의 타자들을 만나야 하는 만큼 기대와 걱정이 교차한다.

이의리는 “대표팀은 항상 좀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 같다”며 “결과를 내는 게 최고지만 어떻게 되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하나하나 답아갈 생각이다”고 WBC에 임하는 마음을 밝혔다.

이제 막 대표팀 일정이 시작된 만큼 아직은 ‘두려움’이 더 크다.

이의리는 “마운드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솔직히 덕아웃에서만 보고 싶다(웃음). 대표팀 가는 건 좋지만 야구 하는 게 무섭다.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인 걸 알면서도 막상 경기 뛰라고 하면 너무 긴장되고 어렵다”고 솔직한 속내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나이를 떠나 똑같은 국가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부담감은 다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눅들지 않고 내 피칭 하겠다”

기대·걱정 교차 속 성장 계기로

올 시즌 삼진 목표 높게 잡아

야구 노트 쓰면서 꿈 향해 전진

캠프 마지막 훈련 뒤 대표팀 합류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뛰어야 한다”며 “유명한 선수가 많이 나와 관심이 쏠릴 것이다. 그런 곳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잘 해야 한다. 내 것을 던지려고 한다. 내 투구를 하고 내려와야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국가대표다운 각오를 다졌다.

이의리는 대표팀을 통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올림픽 경험은 있지만 불안한 부분은 있다. 나를 못 믿는 게 단점이지는 않는데 또 끝없이 계속 발전하려는 특성이 있다. 형들하고 이야기 많이 하면서 훈련하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발전도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3월 9일 대표팀 첫 경기 시작되는 등 올 시즌은 빠르게 돌아가지만 준비는 차분히 이뤄지고 있다.

이의리는 “작년에 남들에 비하면 많이 던지지는 않았지만 나로서는 많이 던져서 급하게 안 하려고 했다. 올해는 조금 천천히 완성하자, 조금씩, 하나씩 해가자는 마음이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 WBC를 시작으로 아시안게임, 포스트시즌이라는 목표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의리는 매일 ‘야구 노트’를 쓰면서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이의리는 “내 목표, 오늘 하루 느낀 점들을 쓴다.

(목표)를 쓰다 보면 내가 그런 선수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렇게 쓰다 보면 그런 선수가 된다고 하더라. ‘이런 투수가 좋다’, ‘이런 투수가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목표 기록들을 써냈다”며 “목표를 과하게 잡지 않았고 급하게 가고 싶지도 않다. 아직 경험을 많이 해야 하는 나이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투구, 에이스의 기록을 써냈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 크게 잡아 놓은 수치 중 하나는 ‘삼진’이다.

이의리는 “삼진 목표는 말도 안 되게 좀 높게 해놨는데 나에게도 그게 에이스 기준이다. 개인적으로는 삼진 잡는 투수가 잘 던지는 투수라고 생각한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삼진이 아니라 쉽게 쉽게 삼진을 잡는 투수가 되고 싶다. 그게 제일 어렵지만 반드시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의리는 밸런스와 완성도에 신경 쓰고 있다.

그는 “기술적 완성도에서 항상 아쉬움이 남아 조금씩 고쳐가고 있다. 폼, 구종도 작년 보다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삼진 잡기 위해서는 타자들이 생각할 게 많아져야 하니 구종의 완성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캠프에서는 체인지업에 가장 신경 썼다”고 말했다.

또 “아직 기록이 있다는 게 아쉽지만 기록을 줄이면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내 스스로 ‘이렇게 될 수 있다’, ‘이정도 투수가 될 수 있다’고 다짐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한다. 그런 자신감으로 올 시즌 들어가고 싶어서 야구 노트에 많이 쓰고 있다. 안 다치고 대표팀 잘 뛰고 돌아와서 목표하는 것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wool@kwangju.co.kr



KIA 좌완 이의리가 애리조나 스프링캠프에서 투구 훈련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가자 WBC 4강...한국 야구대표팀 본격 발진

이강철 감독·KIA 3명 등  
엔트리 확정 42일 만에 집결  
오늘 시차·기후적응 훈련

3월 개막하는 5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4강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야구대표팀이 마침내 한 자리에 모였다.

이강철 대표팀 감독을 필두로 코치 7명, 선수 28명은 15일 오전(한국시간) 합동 훈련의 베이스 캠프가 차려진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의 웨스트워드 룩 워덤 그랜드 리조트에 속속 집결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소속팀에서 훈련하는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한국계 내야수 토미 현수(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두 명만 제외하고 지난달 4일 대표팀 최종 엔트리(30명) 명단 발표 이래 42일 만에 선수단이 결집했다.

투손 키노 스포츠콤플렉스에서 스프링캠프 훈련 중인 kt wiz의 이강철 감독과 kt 소속 대표 선수들, kt와 구장을 함께 쓰는 KIA 타이거즈 선수 3명, 역시 투손에서 겨울을 나는 NC 다이노스 소속 대표 선수 3명이 가장 먼저 대표팀 숙소로 도착했다.

신규조화로 준우승을 차지한 2009년 2회 WBC 이래 14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 4강 이상 진출을 노리는 한국 야구대표팀은 한국시간으로 16일 오전 2시(현지시간 15일 오전 10시)에 키노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모여 시차와 기후 적응 훈련으로 첫 연습을 시작했다.

이어 17일 곧바로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한 연습 경기를 시작으로 이달 28일까지 KIA(20일), kt(23-25일), LG(27일)와 연습 경기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023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대표팀 김광현, 이정후 등 선수들이 1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의 대표팀 숙소인 웨스트워드 룩 워덤 그랜드 리조트 앤드 스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3월 9일 호주와 벌이는 WBC 본선 B조 1차전이 이번 대회에서 한국 야구의 명운을 건 최대 승부처인 만큼 이강철 감독과 대표 선수들은 ‘D-데이’에 맞춰 조직력을 키우는 데 합동 훈련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전략 분석팀이 수집한 경쟁국의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유하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다.

한국 야구대표팀은 3월 1일 귀국해 다음날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회복 및 시차 훈련으로 기세를 이끈 뒤 3월 4일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 3월 6~7일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 한신 타이거스와의 평가전을 마지막 수능으로 치르고 본선에

입한다. 김하성은 3월 2일 고척 훈련, 토미 에드먼은 오사카 훈련 때 대표팀 합류를 목표로 한다.

한국은 일본, 호주, 중국, 체코와 벌이는 B조 1라운드에서 호주를 잡으면 8강 진출의 유리한 고지에 선다.

1라운드를 무사히 통과하면 한국은 대만, 쿠바, 네덜란드 등 A조에서 올라온 나라와 8강전에서 격돌하고, 8강전에서 승리하면 다시 미국 플로리다주로 건너가 미국, 도미니카공화국 등 MLB 스타들이 준비한 C, D조 국가와 준결승전에서 만난다. /연합뉴스

## 살벌한 이동 일정...컨디션 유지 특명

한→미→일→미→한→일 등 쳄바퀴 순환에 시차 적응 전쟁

“컨디션을 유지하라.”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야구대표팀에 떨어진 특명이다.

15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에 집결한 대표팀 선수들은 본격적으로 컨디션 조절 및 시차 적응과 전쟁을 시작한다.

대표팀 선수들의 이동 경로와 일정을 살펴보면 숨이 막힐 정도다. 가령 삼성 라이온즈의 토종 에이스 원태인(23)이 그렇다.

지난달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개인 훈련을 한 원태인은 팀 스프링캠프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로 향했고, 보름 만에 다시 태평양을 건너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에 온다.

양의지(36)를 비롯한 두산 베어스 소속 대표팀 선수들은 호주에서,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은 한국과 괌에서 이동했다.

대표팀의 향후 일정도 복잡하다. 27일 귀국길에 오르는 대표팀은 일본 오사카를 거쳐 WBC 본선 1라운드가 열리는 도쿄로 향한다.

대표팀이 4강에 진출하면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최대 2경기를 치른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

원태인은 두 달 반 동안 약 7만 2000km(직선거리 기준)를 이동한다. 지구 둘레(약 4만km) 두 배와 가깝다. 원태인은 여러 차례 장거리 이동과 밤낮이 바뀌는 시차 적응을 감수해야 한다.

애리조나주에서 팀 전지 훈련을 소화한 키움 히어로즈, LG 트윈스, NC 다이노스, KIA 타이거즈, kt wiz 소속 선수들과 플로리다주에서 훈련한 SSG 랜더스 선수들의 상황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연합뉴스



이강철 감독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KIA 타이거즈 스프링캠프 훈련장에서 카트를 타고 WBC 대표팀 투수로 선발된 양현종, 이의리의 투구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같은 조에 속한 경쟁팀들은 비교적 여유로운 일정을 따른다.

일본 대표팀 선수들은 일본 내에서 팀 전지 훈련을 하다가 미야자키현 대표팀 훈련에 합류하고, 일본에서 열리는 본선 1라운드를 치른다.

호주 대표팀도 자국에서 대회를 준비하다 일본으로 이동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다. KBO는 각 팀 스프링캠프지에서 애리조나주로 이동한 대표팀 모든 선수, 코치들에게 비즈니스 등급 항공편을 지원했다.

그동안 KBO는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구원원들에게 이코노미 등급 항공편을 지원했지만, 이번 대회에선 선수단 건의를 받아들였다.

대표팀 선수들은 귀국과 일본 출국 시에도 비즈니스 등급 항공편을 이용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퀵메이니아**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메이니아, 메간
- 2관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메이니아, 타이타닉
- 3관 타이타닉
- 4관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메이니아
- 5관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메이니아, 상견니
- 6관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메이니아
- 7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교섭
- 8관 세네카를 에메이징 모리스, 두다다쿵: 후후섬의 비밀,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람이 사라진다 해도 영웅, 네가 떨어뜨린 푸른 하늘, 메간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2-01(수) ~ 2023-02-26(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명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판소리감상회**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공연  
**국립광주박물관과 함께하는 판소리감상회**  
일시 : 2023-02-26(일), 2023-03-26(일) 15:00  
장소 :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  
문의 : 062-526-0363